

# 아시아 정상 도전 K리그, ACL 성적 저조

### FC서울·울산 현대·수원 삼성 조별리그 문턱 넘지 못하고 좌절... 제주 يونايتد 유일하게 16강행

아시아 정상 등극에 도전했던 K리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제주 يونايتد를 제외한 FC서울, 울산 현대, 수원 삼성은 2017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아쉬운 결과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다. 지난해 ACL 챔피언 전북 현대가 K리그 클래식에서 '심판 매수'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ACL 출전이 좌절되면서 흔들렸다. 지난 시즌 K리그 클래식 4위를 차지한 울산은 전북의 출전 불발로 올해 대회에 참가했다.

울산은 전지훈련 도중 이 같은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해 키차(홍콩)와 플레이오프를 치렀다. 우여곡절 끝에 승리를 한 울산은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정작 본선에선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였다.

조별리그 1차전 가시마 애플러스(일본) 원정경기에서 0-2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다. 홈에서 열린 2차전 브리즈번 로어(호주)를 상대로 6-0 대승을 거두며 살아나는 듯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다.

이후 울산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무양통 유나이티드(태국)에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가시마와의 홈경기에서 0-4 대패를 당하면서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10일 열린 브리즈번 원정 최종전에서 3-2 역전승을 거두며 유종의 미를 거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시즌 K리그 챔피언 FC서울은 더욱 참담했다. F조에 속한 서울은 조별리그 1~3차전에서 우라와 레드(일본), 상하이 상강(중국), 웨스턴 시드니(호주)에 연달아 패하면서 쉽게 살아나지 못했다.

4차전 시드니 원정에서 첫 승을 기록했



**오늘은 스키인의 날**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스키 선수단 선전 기념 '스키인의 날' 행사에서 신동빈 대한스키협회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 내빈,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만 이미 늦었다. 서울이 3연패에 빠져있을 때 우리와 상하이는 차곡차곡 승점을 쌓으며 달아났다.

지난 시즌 클래식에서 창단 후 첫 하위 스포팅으로 추락한 수원은 FA컵 우승의 기운을 ACL로 이어가지 못했다.

4차전까지 무패행진(2승2무)을 달리며 한때 조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5, 6차전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 울산, 수원이 허우적 거릴때 제주는 K리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웠다.

지난 시즌 클래식 3위를 차지한 제주는 당초 이번 대회에서 E조에 편성됐지만 전북 사태로 H조로 자리를 옮겼다.

장쑤 쉰닝(중국), 감바 오사카(일본), 에블레이드 유나이티드(호주)와 함께 한조에 묶인 제주는 1차전 장쑤전에서 일격을 당했고 감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반전에 나섰지만 3차전과 4차전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16강 진출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5차전 장쑤 원정경기과 감바와의 최종전에서 2연승을 챙겼고, 3승무2패(승점 10) 조 2위로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K리그가 속한 동아시아 16강 진출 팀(8팀)을 보면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국 클럽팀들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중국 슈퍼리그는 상하이 상강 광저우에 버그라테, 장쑤 쉰닝 등 강팀들이 이번 없이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나마 제주가 K리그의 자존심을 세웠다. 제주는 올 시즌을 앞두고 7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베테랑 중앙수비수 조영형을 비롯해 멘디, 마그노, 알렉스, 김원일, 진성욱, 이창근, 박진포, 이찬동 등 전 포지션에서 골고른 선수 영입을 통해 더블 스쿼드를 구성했다.

이 같은 투자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화려한 공격력으로 클래식 선두를 달리고 있고, ACL 조별리그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김민근기자



전주시, 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13일까지

전주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북체육회 스쿼시 경기장 및 전주비전대학교 스쿼시 경기장에서 제11회 회장배 전국 스쿼시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스쿼시연맹에서 주최하고 전라북도스쿼시연맹, 전주시스쿼시연맹에서 주관하며 전라북도, 전북체육회, 전주시체육회, 전주비전대학교에서 후원하며, 17개 시·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약 650여명이 참여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겨룬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국내의 스쿼시 대회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회로서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참가하여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의 성적은 대학 진학에 반영될 정도로 우수대회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전년도 남자일반부에서 우승한 이창택 선수가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거라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스쿼시의 보급화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동일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가 전국 최고 수준의 대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경기에 관람하여 주시고 스쿼시 대중화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U-20 월드컵조직위 류준열과 '일석이조' 이벤트

2017피파U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조직위)가 오는 20일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대회 본부도시인 수원 흥보대사 배우 류준열과 함께 하는 '일석이조'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직위는 오는 19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류준열의 애장품과 아디다스 축구 용품 등 다양한 경품을 걸었다.

이 이벤트는 한국 U-20 대표팀의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와 결승전이 수원에서 열리는 만큼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본부도시인 수원에서 열리는 경기 티켓을 구매하고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인증 사진을 남기거나 인스타그램에서 "#FIFAU20월드컵 #TriggertheFever #열정을깨워라"라는 3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 포스트를 게시하면 이벤트 응모가 완료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다.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은 FIFA 주관 대회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대회로써 오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대전, 수원, 인천, 전주, 제주, 천안에서 3주간 총 24개국에 걸쳐 열전을 벌인다.

/김민근기자

# 레알마드리드, AT마드리드 제치고 UCL 결승 진출

### 내달 4일 유벤투스와 결승전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치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11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6~2017시즌 UCL 4강 2차전에서 1-2로 패했다.

지난 1차전 홈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뒀던 레알 마드리드는 1, 2차전 합계 4-2로 결승행을 확정했다.

'다렌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승리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결승 진출을 확정 한 유벤투스와 다음달 챔피언 트로피 빅이어를 놓고 단판승부를 벌인다.

/김민근기자

아틀레티코는 전반 12분 사울 니게즈의 헤딩 득점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4분 뒤인 전반 16분에는 페르난도 토레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앙투안 그리즈만이 성공시키면서 2-0으로 앞서 나갔다.

반격에 나선 레알이 전반 42분 토니 크로스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나오자 이스코가 재차 슈팅으로 연결하며 득점을 올렸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12분 토레스와 호세 히메네스를 빼고 케빈 가메이로와 토마스 테에페티를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굳게 닫힌 레알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결승전은 오는 6월4일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김민근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